

투데이 칼럼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 행복

현대는 지식정보화 시대이며 감성과 문화의 시대이다. 옛말에 '알아야 면장도 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지적향상(知的向上)의 중요성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향상을 저해하는 장애물은 늘 있기 마련이다. 이 장애물은 지적 성장이 어느 연령층에 이르러 되면 정지된다. 그 후로는 근소한 성장밖에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그 한계는 20세를 전후로 한다. 30세가 지나면 이미 때가 늦기 때문에 20세가 넘은 후에는 새로운 능력 개발을 위해 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년 시절은 황금과도 같은 때이고 이 시절을 소중히 보내야 한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 가을이 되어 풍성한 수확을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그 래야 장래에 큰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 사람의 나이와 지적 성장과의 관계를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 앞에서는 한계가 필요 없다. 나이가 들어 비로소 배우기 시작한 사람도 많다. 독학을 통해 성공한 사람도 매우 많다. 40대에 비로소 자신과의 싸움의 길에 들어서서 성공을 거둔 사람도 많다. 자기 개발을 위해 60대, 70대에도 자기개발을 위해 '스피치' 공부를 하는 것을 볼 때 필자는 그들을 존경한다.



김 양 옥

전주교대 평생교육원 교수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다.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그것을 실천하는 끈질긴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스스로가 한 번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곧 착수할 수 있는 강한 결단력이다. 나이가 들면 습득한 지식을 쉽게 잊어버린다. 그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실용적(實用)인 성격을 둔 지식은 반드시 기억에 남아 있기 마련이다. 프랭클린은 평생동안 배우기

를 계속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고 있다. 그리고 한 번 기억한 것은 결코 잊지 않았다. 거의 모든 지식이 당장 사용해야 할 실용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지식의 필요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일이다. 자신이 정신적으로나 삶에 지식이 부족한 것이 많다는 점을 깨닫는 순간, 벌써 절반은 지식의 소유자가 된 것이다.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일은 이미 지식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상태를 의미한다. 삶의 풍요를 위해 지적노력은 물론 취미와 자기 계발에 노력해야 한다. 자기를 개척하고 성장시키는데 망설이지 말고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 바로 시작하자. 모든 일은 자기가 내딛는 첫 발자국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끊임 없이 배우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다.

사설

건원 초상화 제작 공모

전주시는 건원의 표준영정 제작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표준영정은 정부가 공식 인증하는 위인의 초상화다. 건원은 신라의 장군으로 889년 거병해 892년 무진주(현 광주광역시)를 점령했다.

그 뒤 900년 완산주(전북 전주)를 수도로 후백제를 건국했다. 이후 35년간 공예, 왕건 등과 함께 후삼국 시대 패권을 다투다 936년 사망했다. 경북 문경과 상주에선 건원 사당과 숭의전을 건립해 제례와 향사를 매년 진행해 왔다.

전주시가 건원의 숭모제와 공연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위패만 설치한 실정이다. 표준영정의 초안을 그림 용역사 선정에 이어 1년간 초안 제작을 마친 후, 문화체육관광부 심의를 받아 다시 1년 동안 채색 작업이 들어간다.

그러나 건원의 얼굴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많지 않다. 삼국사기에는 "어린 시절부터 체격과 용모가 웅장하고 기이했

으며 생각과 기풍이 활달하고 비범했다"고 기록돼 있다.

전주시는 우선 '호랑이의 젓을 먹고 자랐다'는 삼국유사 기록이나, 건원의 행적과 성품, 당시 사회상을 근거로 호랑이상을 가진 용맹한 왕을 표현한다는 구상이다. 또 황간 견씨 등 후손들의 모습도 접목할 예정이다.

고종 문제도 넘어야 할 과제다. 후백제 시대 유물을 바탕으로 당시 복색과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 제작된 건원 영정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선양 사업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 후백제 시대 무릉 유적이 있는 덕진구 아중리 일원에 사당을 건립하고, 건원의 표준영정을 배향해야 한다.

전주시는 고증 및 학술연구를 마친 후 7명의 지문위원단을 구성해 화가를 선정할 예정이다. 후백제의 왕도였던 전주의 문화적 고유성과 역사적 정체성을 고양하고 확립할 것으로 기대한다.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전북 진안군이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교육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교육은 어려운 행정 용어와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실시됐다.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활용해 주민들의 지자체의 정책 정보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홍보 자료 작성 시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하도록 강조했다.

외국어와 한자 등 어려운 용어는 최대한 순화된 언어를 사용하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32.3%가 공공언어를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있다.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등 국어를 효율적으로 진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어렵고 생소한 공공언어를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바꾸

어야 한다. 공문서, 보도자료 등을 검수해 외국어와 한자어 등 까다로운 언어를 과감하게 순화해야 한다.

'공공언어 바로알기 게시판'을 신설해 순화된 행정 용어를 게시해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공고문, 홍보물, 각종 민원 서식 등 시민이 이용할 때 개선해야 할 용어를 접수받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기관 검토를 통해 바른 행정 용어로 바뀌어나가야 한다. 정책과 법 제도는 시민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공공언어는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권위적이고 차별적인 공공언어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일이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다.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는 공공정보의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다. 지자체들은 먼저 올바른 언어문화 확산을 위한 직원 교육부터 실시하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스페인 물총 싸움 "물 맞아도 즐거워"



지난 16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 빌레카스쿠에서 열린 물총 싸움 참가자들이 호스로 뿌리는 물을 맞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폭우 쏟아져도 메시 입단은 즐거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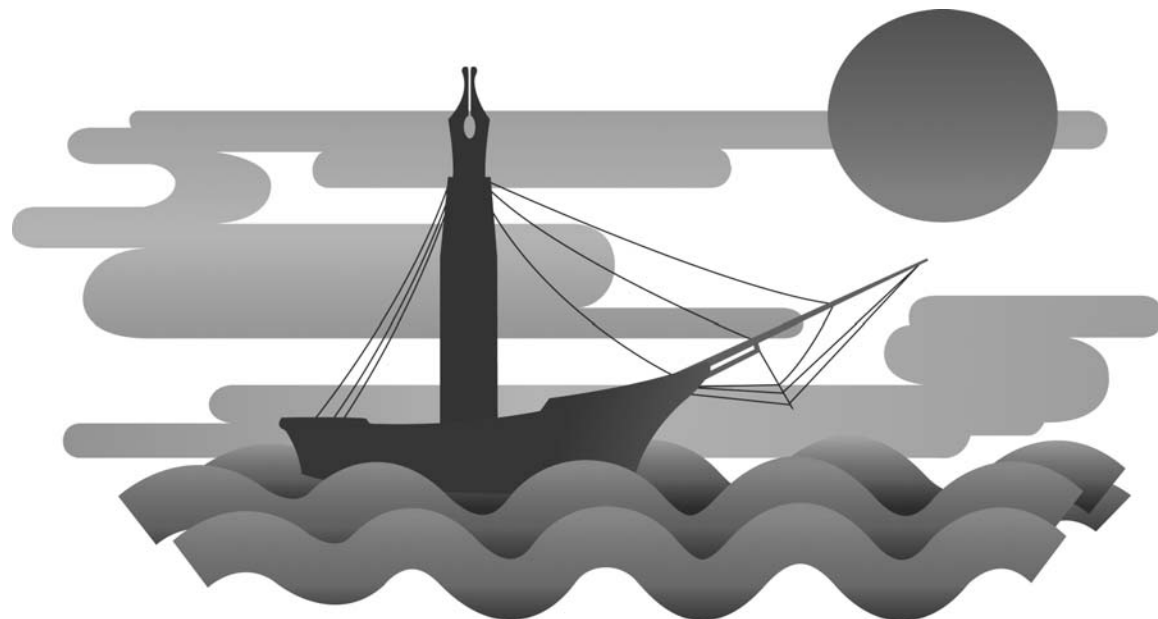
리오넬 메시의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인터 마이애미 입단식이 열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각) 미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의 DRV PNK 스타디움에서 축구팬들이 쏟아지는 비를 피하고 있다. 메시는 17일 첫 공식 훈련에 돌입하며 21일 리그컵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